

여수 출신 문지영 '제60회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 한국인 최초 1위

세계적 권위 이탈리아 콩쿠르
초6 때 호남예술제 최고상 수상

여수 출신 피아니스트 문지영(20) 씨가 지난 4일(현지 시간) 이탈리아에서 폐막한 '제60회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한국예술종합학교가 6일 밝혔다.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는 이탈리아의 세계적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페루치오 부조니를 기리기 위해 1949년 창설된 대회로, 알프레드 브렌델, 마르타 아르헤리치 등을 배출한 대회다. 2001년 격년제로 바뀐 이후 단 3명만이 1위를 수상했으며 한국인으로는 1980년 서

해경, 1997년 이윤수가 '1위 없는 2위'를 차지했다. 결선에서 쇼팽의 '피아노 콘체르토 제2번 f단조'를 연주해 우승을 차지한 문 씨는 지난해 제네바 국제콩쿠르에서도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피아노 부문 1위를 한 바 있다.

5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문씨는 여수 문수초등학교 6학년 때 호남예술제에서 최고상을 수상하고 같은 해 선화예고 콩쿠르에서 우승, 선화영재아카데미 레슨 기회를 얻었다. 이후 '아트 드림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으며 피아니스트 김대진교수와 인연을 맺었다. 선화예중에 수석 합격했으나 흡스쿨을 선택, 김정고시로 중·고교 교과과정을 마쳤고 올해 한예중에서 수석입학했다.

2012년 독일 예들링엔 피아노 콩쿠르에서 손열음, 김선옥 이후 한국인으로는 8년 만에 1위에 올랐으며 일



본 다카마쓰 콩쿠르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민규, 표절 인정 "난 비난 받아 마땅"

데뷔작 '삼미 슈퍼스타즈'
단편 '낮잠' 비슷한면 있다

소설가 박민규(47)씨가 자신의 데뷔작인 장편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사진)과 단편 '낮잠'이 표절이라고 인정했다.

6일 문학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발간된 월간지 '월간중앙' 9월호에는 박씨가 문학평론가 정문순·최강민 씨에게 보내는 해명의 글이 실렸다.

두 평론가는 앞서 '월간중앙' 8월호에서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이 실제 구단 삼미 슈퍼스타즈의 옛 팬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거꾸로 보는 한국야구사'라는 제목의 글에 나온 선수 묘사 등 일부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 소설에서 한국 프로야구의 만년 꼴찌팀이었던 삼미 슈퍼스타즈를 모티브로 경쟁과 죽음을 부추기는 현대 자본주의의 실상을 신랄히 풍자했다.

평론가들은 박씨의 단편 '낮잠'은 배경과 인물 설정이 일본 만화 '황혼 유성군'과 우연 이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낮잠'은 요양원을 배경으로 황혼기 남편의 가슴 시린 사랑과 회한을 담아낸 작품이며 연극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처음 주장이 제기되자 박씨는 "혼자 독일에 앉아서 완전한 창조를 한다고 해도 무연한 일치가 일어날 수 있다"며 표절 의혹을 부인하고 불쾌감을 표현했다.

그러나 박씨는 입장을 바꿔 집지 9월호에 보낸 해명의 글에서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의 시작부에는 1982년 신문 기사가 필요했고



박민규

1982~1985년 3년치의 스포츠 신문 기사와 실제 경험담 내지는 여러 풍문이 바탕이 됐다"며 "인터넷 글 '거꾸로 보는 한국 야구사' 역시 그때 찾은 자료의 하나였다"고 털어냈다.

박씨는 이어 "명백한 도용이고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저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아이였으며 연극 무대에 오르기 위해서 자료를 찾는 경우이지 소재에서 아이디어를 구한 경우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씨는 단편 '낮잠'에 대해서는 "일본 만화 '황혼유성군'은 신인 시절 '읽을만한 책 추천' 등의 잡문을 쓰기 위해 오래전 읽었던 기억이 있다"며 "실사 보편적인 로맨스의 구도라고 해도 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의 시작부에는 1982년 신문 기사가 필요했고

임방울국악제...소리꾼들 국악한마당 열린다

11~14일 광주문예회관·광주향교

전공자 등용문·퓨전판소리 일반부 신설
11일 광주향교서 판소리 장기자랑
조통달·조관우·조현 3대 '심청가'도



'국창' 임방울

광주시 광산구(옛 전남 광산군 동곡면) 출신인 국창 임방울(1904~1961) 선생은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 마음을 울리는 '소리'로 민초들의 고단함을 어루만져준 진정한 소리꾼이었다.

8살 때 박재현에게 '춘향가'와 '흥보가'를 배우고 공창식·유성준 선생을 사사한 그는 첫번째 무대인 서울 동양극장에서 임방울 소리의 처음이자 끝으로 '쑥대머리'를 불러 이름을 얻었다.

광주시와 (사)임방울국악진흥회는 국창 임방울의 소리 인생을 기리고 국악 발전을 위해 임방울국악제를 열고 있다. 제23회 임방울국악제는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광주 문예회관 대극장, 광주 향교 등에서 열린다.

올해는 전공자들의 등용문을 열어주고, 국악 대중화를 위해 전통과 현대가 융합된 장르인 퓨전 판소리 일반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설했다. 또 일반부 참여 연령을 19세로 낮춰 참여 폭을 확대한 점도 특징이다.

대통령상을 수여하는 명창부 판소리 분야를 비롯해 학생부(판소리·기악·무용), 일반부(농악, 기악, 판소리, 무용, 가야금병창, 시조, 퓨전판소리)에서 열린 경연이 펼쳐진다. 판소리 명창부 대통령상에게는 상금 2000만원과 순금으로 제작한 임방울상(像)을 부상으로 수여하는 등 모두 1억2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판소리 명창부와 기악, 무용 일반부 경연이 펼쳐지는 본선 경연 대회는 14일 오후 2시부터 열리며 SBS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경연 중간 중간 마련되는 축하공연에는 왕기철(판소리), 강은영(진도북춤), 김동연(설장고) 등이 출연한다.

식전 행사로는 광주문예회관 국악당 임방울 선생 동생 앞에서 국창 임방울 예술혼 모시기 행사도 갖는다. 손광은 시인의 추모시 낭송과 헌화 분향이 이어지며 선생의



전야제에 출연하는 김덕수

예술혼을 기리고 국악제의 성공 개최를 염원하는 촛맞이 춤이 펼쳐진다.

11일 광주향교에서 열리는 임방울 판소리 장기자랑은 판소리 애호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행사다. 19세 이상 순수 아마추어가 참여할 수 있으며 임방울 선생의 대표곡인 '쑥대머리', '호남가', '추억' 중 한 곡을 선택해 부르며 되고, 올해는 수상 인원과 상금(700만원)도 늘렸다.

11일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전야제는 코미디언 김병조의 사회로 진행된다.

김덕수와 한울림예술단의 김늘이 '신명놀이'으로 문을 열며 판소리 지난해 대통령상 수상자인 서정민씨가 판소리 '흥보가' 중 '박타는 대목'을 들려준다.

또 소리꾼 조통달, 가수 조관우, 피아노 조현 등 3대가 들려주는 '심청가'와 '흥보가'도 눈길을 끌며 빛고을합스 오케스트라와 타악주자 김광숙(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모듬북협주곡 '타(打)', 김덕수 한울림예술단과 함께하는 사물놀이 협주곡 '신모듬'은 흥겨운 무대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임방울국악진흥회는 올해 처음으로 임방울 선생의 외삼촌이자 판소리 발전의 기초를 닦은 광주 출신 국창 김창환 선생의 삶과 소리 세계를 살펴보는 세미나도 개최했다. 지난 21일 광주 빛고을아트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임금님 앞에서 소리를 한 어전 광대로 협주사를 통해 다양한 작품을 공연, 창곡의 기쁨을 다진 김창환 선생의 예술 세계를 집중 조명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015 우수과학도서 '세상을 움직인...' 등 85종 선정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15년도 우수과학도서'로 '세상을 움직인 동그라미'(장비) 등 85종의 도서를 선정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아동, 초등, 중·고등, 대학·일반 등 대상별로 창작부문과 번역 부문을 나누었다. 여기에 만화와 시리츠 부문을 추가해 모두 10개 부문 85종을 뽑았다.

올해 선정된 도서는 인문, 경제, 철학 등 다른 학제와 연계된 통섭형 도서와 대학,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과학도서가 다수 포함되었다는 게 특징이다.

미래부는 선정된 우수과학도서에 인종마크를 부여하고 지역아동센터와 소외지역 학교, 복지시설 등 350개 기관에 1만2000여권을 무상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과학콘텐츠센터 '사이언스올'과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 책 소개 코너에 선정도서를 소개할 예정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투데이 옥션

부동산거래 추천물건

- 광주 두암동 주유소부지 4차선 대로변 코너 위치 아파트와 주택가 상권 신축 건물부지적합 대지 677㎡ 건물 350㎡ 감정가 11억 8천 최저가 11억 8천
- 광주 동구 학동 근린건물 전대병원 맞은편 위치 병원, 음식점, 편의점, 커피숍 추천 지하 2층 ~ 지상 5층 대지 456㎡ 건물 1779㎡ 감정가 23억 2천 최저가 16억 2천
-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5번차로 공장 건물 4동 기계기구 포함 대지 3495㎡ 건물 2308㎡ 감정가 19억 7천 최저가 13억 8천
- 광주 북구 일곡동 근린 상가주택 사거리 코너 위치 지하층 ~ 지상 5층 대지 755㎡ 건물 1360㎡ 감정가 16억 최저가 11억 2천
- 광주 북구 각화동 상가건물 각화동 금호타운 맞은편위치 요양병원 추천, 지상1층 ~ 지상3층 대지 1115㎡ 건물 1749㎡ 감정가 22억 3천 최저가 15억 6천

경공매전문가 이현석
010-9963-6345

전국꽃배달서비스 전국농장직영

결혼, 고회, 전시회, 개업, 준공식 축하화환

30% 할인

슬픈날 마음을 나누며 조의,부의,근조

30% 할인

전국꽃배달서비스 서비스비 100,000
전국농장직영 서비스비 70,000

전국 ▶ 80,000

전국화환 꽃·도매 362-1122, 010-5532-7799
팩스 942-6633 농협(김희진)175359-56-130180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점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비독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미화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